

##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노력하겠다”




제35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가운데)과 이사들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2023년 제35회 아산상 시상식이 11월 23일 아산생명과학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아산상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수상했다. 의료봉사상은 지난 22년간 베트남의 호찌민 인근 농촌 지역에서 소외된 주민의 질병치료와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의 재활 등에 헌신한 통안 세계로병원 우석정 원장이, 사회봉사상은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20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운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이정아 대표에게 돌아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이들을 시상하는 복지실천상은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남유진 부장, 안산나무를심는장

애인야학 설예심 행정실장, 천양원 유호수 사무국장,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정현숙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사상은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 강봉희 대표, 사랑나눔짜장 김영문 대표, 깨친멋노인자원봉사회가 받았다. 효행과 가족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시상하는 효행·가족상은 김정숙 씨, 정옥자 씨, 조인선 씨, 풍숙영 씨, 하맹선 씨에게 주어졌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라며 “재단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편집부